

慶州崔氏

2010년 신년호



신년사
신년하례회
시조이야기 / 최초의 영정 초상화 / 다향축전
인물포커스
종친회소식

www.gyeongjuchoi.com



영물 백호가 60년만에 우리를 찾아온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백수의 왕 호랑이 중에서도 가족과 무리의 우두머리로 그들을 이끄는 백호는 자기만의 돈보임 보다, 함께 이런 뛰어난을 벤치마킹하여 올 한해 우리는 바쁘다고 정신없어 하며 그 귀하고 소중한을 잊고 있었던 한낱 여야 합니다.

종친형제님!

지난해 우리는 오랜 숙원 이었던 (사)고온국제교류사업회를 훌륭한 형제님들의 후원으로 설립하고 이어 지경 수많은 학문적 성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정확히 평가 받기 기대합니다.

종친형제 여러분!

종친회는 자신이 받게 될 댓가나 손익을 따져 가며 참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했거나 아니거나 를 막론하고 자신의 뿌리가 경주최씨라는 변할수 없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 뿌린 씨가 다시 우리 형제 모두의 가슴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과 함께 자라

사랑하는 종친형제님!

경인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백호처럼 함께 따뜻한 사랑 나누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보다, 함께 하므로 더욱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있었던 한뫼줄을 나누는 형제들과 함께 할 큰 울타리인 종친회가 크게 부흥되는 원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 하

고 이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로써 시조께서 그 이름을 대륙전체에 드날렸던 중국과의 교류와 함께, 특히 평가 받지 못했던 업적들을 재 정립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토양이 준비 되었으니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인지 해야 하며, 따라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숭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자라 이룬 숲이 온 세상을 사랑넘치는 따뜻함으로 속 시원하게 하는 그날까지 너도,나도 없는 우리여야 합니다.

을 다해 모든 소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경인년 월간



경주최씨경남총친회 (사단법인 고은 국제교류사업회 경남지회) 2010년 신년호 통권 23호

발행인 : 최호석 / 편집인 : 최옥천 / 인쇄 : 성문정판인쇄사 / 사무국 전화 : 055-285-5548, 5321, 팩스 : 055-285-5057
 / 사무국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2층 (주)한국보험컨설팅
 / 홈페이지 : www.gyeongjuchoi.com / 이메일 : coc1204@harmail.net

CONTENTS

vol.23 + 2010
신년호

02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06	신년사	최시중 중앙종친회장
07		최근덕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장
08	신년하례회	중앙종친회 및 고운국제교류사업회
11		경남종친회
14	인물포커스	최평규 S&T그룹 회장
20	시조이야기	최초의 영정 초상화 - 진주박물관
23		대한민국다향축전
25	오피니언리더	최교일 법무부검찰국장
26		최해범 제 11대 관세학회장
28	이슈	최상천 / KBS 특별기획드라마 “명가”
29	형제이야기	최기석 / 내인생의 습관은
30		최철수 / 자아관
32		최미숙 / 중국의 심장 북경
34	종친회소식	
35		중앙종친회,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36		경주대중회 최병국회장 신년사
37		호남종친회 최준식박사 가송악학상 수상
38		충북종친회 최철수회장 신년사 / 정기총회
41		경남종친회 최충경 /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42		사무국보고 / 정기이사회
44		띠앗회(회장 최동식) 봉사활동
46		진주화수회 / 시조영정탐방
47		거창화수회 / 청년회정기총회
48		창녕화수회 / 관룡사와 문화관광지
49		함양화수회 / 정기총회
50		김해장유문중
51	동정	중앙회 / 회장, 이사장
52		경남 / 회장 효석 외 임원
55	경남종친회 제3기 임원소개	
59	경조사	
60	뒷표지	운암 영당 소장 시조 최초 영정 초상화





‘수처작주(隋處作主)’

새 해를 여는 이 맘 때면 ‘수처작주(隋處作主)’라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는 그곳에서 주인(主人)이 되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늘 진실하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국력이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00년 전 국권침탈(國權侵奪)과 60년 전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 각자의 주인의식이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개혁과 학문 등으로 돌파구를 열어갔던 우리 경주(慶州) 최씨(崔氏) 선조(先祖)님들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바탕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종친(宗親) 제위(諸位) 여러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경인년(庚寅年)은 60년 만에 돌아온 영물(靈物) 백호(白虎)의 해입니다.

자신의 강인함 만을 뽐내며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호랑이와 달리, 영물 백호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간다고 합니다.

모든 중심에 가족이 우선이 되는 핏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 종친형제들 또한 하나로 힘을 모을 호기(好機)라 여겨집니다.

저도 미력(微力)이나마 힘껏 돕겠습니다. 지난해 고운국제교류사업회(孤雲國際交流事業會) 발족과 홈페이지 마련에 이어, 지난 3년간 중단됐던 회보(會報)를 이번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종친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회 양극화(兩極化)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살피는 상생(相生)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뒤처진 사람도 끌어안고 함께 갔던 우리 선조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구현(具現)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국 종친 여러분의 건승(健勝)하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0년 庚寅年 새해
慶州崔氏中央宗親會 會長 崔時仲

고운(孤雲)시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전국 2백만 종친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부디 庚寅年 한 해 건강과 행운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 민족을 위한 보람찬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중앙총친회에서 사단법인으로 「孤雲國際交流事業會」를 창립해 始祖 할아버님 현창(顯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국 종친 여러분의 돈독(敦篤)한 성원(聲援)과 앞장 선 몇몇 분의 열성(熱性)이 열매 맺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고운(孤雲)시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하나 하나 차근차근 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운 시조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국학(國學)의 첫 문을 연 분이십니다. 처음으로 문학과 사상이 담긴 저술(桂苑筆耕 20卷)을 남겨 후세에 본보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지난해 첫 사업으로 「孤雲研究叢書」第1輯을 출간했고,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2집 3집에 이어 국제 학술회의도 열고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종친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 건강(健康)과 행운(幸運)을 누리시기를 거듭 기원(祈願)하는 바입니다.

社團法人 孤雲國際交流事業會
理事長 崔根德

중앙종친회,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2010년 1월 16일 12:00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우봉홀에서 중앙종친회 회장단과 고운사업회 위원 65명이 참석하여 (주)귀뚜라미보일러 최진민회장의 사회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시조님에대한 묵념 에 이어 '최근덕이사장님' 최시중회장님의 신년인사에 이어 최동진 감사님의 경과보고의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보고내용으로는 '고운회관건립을위한 기금모금 중간보고, 'CMS 확대실시 참여를 독려 하였으며, 신년하례회 행사를 후원하여주신 최진민회장께 참석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오찬과 함께 각 종친들의 신년인사가 자연스럽게 펼쳐졌으며, 올 한해 더욱 발전 하는 '중앙종친회와'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가 더욱 발전하여 문창후 고운 선생의 문학적 학문적 뜻을 좀 더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기원하는 신년인사들과 축하의 건배 제의가 이어지며 화기에애한 자리가 무르익었다.

오찬후 합동 기념촬영을 한 후 (주)귀뚜라미보일러에서 준비한 도자기 기념품을 참석자에게 전달하고 폐회하였다.







경남종친회

2010년 새해 벽두인 1월 7일 창원시 소재 인터내셔널호텔 다이아몬드홀 에서 개최된 “임원상견례 겸 신년하례회” 행사가 경남전역에서 참석하신 임원 형제 자매님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서로의 자리에서 자리잡고 계심으로 해서 함께 한자리에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동으로 양산에서, 서로 진주, 그리고 북으로 거창에서 까지 참여하여 주신 70 여분으로 행사장이 따뜻한 훈기로 가득 하였으며 새로 보임된 임원님들의 인사가 있었다.

특히 이날은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한곳인 “S&T그룹의 최평규회장” 계서(본회 상임고문) 50여분간에 걸쳐 27살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 현재 “매출 2조 5천억원, 종업원 3,500여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자리 메김할” 과정을 진솔하게 쏟아내는 특강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최평규회장의 지나온 여정을 진한 감동으로 가슴에 담았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시대, S&T그룹은 2010년 승자의 위치에서 크게 도약할 것"

S&T그룹은 1979년 인천 주안공단에서 직원 7명으로 출발한 삼영열기공업(현 S&Tc)이 모태이다.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M&A를 비롯해 2006년 6월 대우정밀(현 S&T대우)M&A, 2007년 3월 효성기계(현 S&T모터스) 등을 각각 M&A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다.

현재의 사명인 'S&T'는 지난 2005년 6월 3일 CI(corporate identity)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의 영문 첫자를 조합해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9월 13일 자산 1조 3천억 원 규모의 S&T그룹이 탄생했다.

S&T그룹은 S&Tc(옛 삼영열기공업) 창업 30주년과 S&T그룹 출범 4주년을 맞이한 2010년 현재 22개 계열사(상장사 5개, 비상자사 6개, 해외법인 11개)와 임직원 3,500명, 자산규모 2조 5,000억원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치로 21세기 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현장경영'과 '정도경영'을 중

시하는 S&T그룹 최평규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면모와 인간 최평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첫 직장생활과 '맥얼로이'와의 인연

대학 졸업 후 최회장은 에어컨 제조회사인 '센츄리' 입사 후 5년간 두 군데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1년 동안 일본 '히타치제작소'에서 기술연수를 받는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열

공학'은 S&Tc(옛 삼영열기공업)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인 열교환기 기술자 '맥얼로이'와 인연을 맺은 것도 그때다. 1979년 이민을 떠나는 처가식구들과 함께 도미의 길에 올랐지만, 6개월 만에 창업을 결심하고 귀국한다. 귀국 전 '맥얼로이'의 초청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열교환기 소재인 '핀튜브'를 만드는 '피닝머신'을 접하게 된다.

2. 삼영기계공업사(현, S&Tc) 창업

'맥얼로이'가 개발한 '피닝머신'이 좋은 기계라고 판단, 수입을하기로 결심한다. 당시 관세를 포함해서 약 9천만원 하는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 서울의 17평 아파트를 팔아 '삼영기계공업사'를 세운다. 직원은 자신을 포함해 7명이 전부였다. 1979년 10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식빵에 고추장을 발라먹는' 고생 끝에 기술을 전수받았다. 귀국하기 하루 전날에 10.26 사태가 발생한다. 최회장은 기계수입을 유보하고 홀로 귀국한다.

석 달 가량 실의의 날을 보내던 중 1980년 1월 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정부가 단행한 '1.21 조치'(원/달러 환율을 600원에서 480원으로 낮춤, 원화평가절상)가 발표된 것이다. 수입하려던 기계의 원화 가격이 하루아침에 20%나 내려갔다. 다시 기계를 수입하기로 결심, 1월 20일 통관을 거쳐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최회장은 초기에 두개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하나는 '부장 최평규'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 최평규'였다. 영업하러 갈 때는 부장 명함을 들고 다녔고, 수주에 성공하고 난 후에야 대표이사 명함을 꺼냈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은행 빚을 모두 갚았다.

3. 위기를 기회로

1979년 창업 후 3~4년 쯤 지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기계가 모두 불타버린 것이었다. 한창 잘 나가던 때였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불에 탄 기계를 뜯어 본 결과 직접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한 최회장은 수입산 기계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직접 설계해 기계 3대를 만들었다. 직접 만든 기계의 성능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수입산 기계와 비슷했다. 매출이 3배로 늘어났다. 1996년까지 매출이 150억원까지 커질 정도로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해갔다.

그러다가 두 번째 시련을 맞게 된다.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납품받던 제품을 직접 제작하겠다고 하루아침에 주문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에 최평규 회장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으로 곧바로 건너간다. 미국의 세계적인 보일러 회사인 'CE'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1997년부터 해외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다. 당시 외환 위기로 800원 하던 환율은 1,600원까지 오르며 매출이 급증했다. 뜻밖의 화재, 핵심거래처의 거래 중단과 외환위기 등의 큰 위기가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작용한 것이다. "내가 망하면 우리가족, 나아가 우리 직원 모두가 다 망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만이 살길이다."라는 각오로 노력하던 최회장에게 위기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S&T그룹의 탄생

1979.8 설립한 '삼영기계공업사'는 1999년 '삼영열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0.3 코스닥에 등록했다. 2002.2 '삼영'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그 해 10월 거래소에 상장, 2005. 7 주식회사 'S&Tc'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2. 8 경우상호저축은행(현 S&T저축은행)M&A, 2003. 2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M&A, 2004. 5 심양금배통일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2006. 6 대우정밀(현 S&T대

우)M&A 후, 그 해 9월 13일 S&T그룹이 출범했다. 2007. 3 효성기계(현 S&T모터스)M&A, 2008. 2 S&T홀딩스(S&T그룹 지주회사)의 출범으로 오늘의 S&T그룹에 이르렀다.

5. 회계, 재무지식을 바탕으로 한 타고난 M&A능력

‘M&A의 귀재’는 최평규 회장에게 붙은 닉네임이다. 오늘날 S&T그룹이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탁월한 M&A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T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그가 직접 창업한 S&Tc를 제외하고 모두 인수한 기업들이다. 최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회계, 재무지식에 아주 밝다. 모두가 혼자서 노력한 독학의 결과다.

“분식회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어느 기업이든 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바로 나옵니다. 그게 80~90%는 맞지요”라고 말할 만큼 이 방면에 능통하다.

최회장이 M&A를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할 때다. 하나는 매수 대상이 기업 가치에 비해 턱없이 싼 때이다. 하지만 이 보다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 지난 2003년 S&T중공업(현 S&T중공업)을 인수한 게 좋은 사례이다. 처음에는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 한 때 강성노조로 유명했던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S&T중공업 공장을 둘러보고 뛰어난 기술력을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바로 찍었다.

6. 최평규 회장의 경영철학

최평규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그의 경영철학은 지난 30년 전 창업 이후 생산부터 재무분야까지 중소기업 사장 경험과 노력, 그리고 독학으로 터득한 결과물이다. 일본 연수를 통한 일본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주협상을 통한 비즈니스 영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최회장은 체계적으로 경영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경영의 기본은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진짜 몸으로 느끼는 현장경영을 위해 매일 현장을 돌아다닌다. 그러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즉시 개선해 준다.

‘생각 즉시 행동’은 최평규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생각 즉시 행동’은 최평규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그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최회장은 “이거 어렵다. 이거 왜 이리 골치 아프냐?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된다. 해결 되겠지, 분명히 해결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 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래가 위협하다고 걱정한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국민성은 평범한 수준이 넘는다. 그리고 근면하다.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마케팅이 어렵다고 한다. “물건은 잘 만든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능의 오토바이라도 세계시장에서 야마하와 혼다 제품은 잘 팔리는데 S&T모터스(옛 효성기계)제품은 잘 안 팔린다. 야마하와 혼다의 아성 때문이다. 이걸 뛰어넘는 데 10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스스로 알고 사줄 그 때까지 기업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고객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기업경영인으로서의 최평규 회장은 ‘현장과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가형 리더’로 규정된다. 22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의 회장이 된 지금도 그는 “공장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대외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언제나 평사원들과 똑 같은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다닌다. 창업 후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1년 365일 일선 직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땀 흘리는 현장경영은 그의 경영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더라도 이를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최회장이 30년의 경영을 통해 체득한 진리이다. S&T그룹 계열사의 각 사업장 곳곳에 ‘생각 즉시 행동’이란 표어를 붙여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7. 바람직한 인재상

최평규 회장은 기업의 핵심은 ‘사람’이고 인재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인재관은 남다르다. 그는 인재의 능력이 학력이나 지식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유능한 직원은 ‘주인의식과 책임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S&Tc, S&T중공업 등 핵심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강성 노조로 유명했던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의 경우 생산직 사원을 포함해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굳게 닫혀 있던 노조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서 노사간에 믿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훌륭한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최회장은 “지금 20대인 젊은이들은 앞으로 기회는 충분히 온다. 다만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소신만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8. 인간 최평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사실 난 매일 밤 11시만 되면 기업하기 싫어진다. 자기 전에는 항상 머리가 아프다. 나는 왜 매일 이 골치 아픈 일을 해야 하나 계속 후회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에 눈만 뜨면 반짝반짝 해 진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어쩔 수 없는 기업인이란 생각이 든다.”는 그의 말에서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오너 회장 이전에 열심히 살아가며 고뇌하는 인간 최평규 회장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스스럼없이 ‘어머니’ 라고 말하는 최회장은 “평생을 살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자식 넷을 키우신 어머니의 강한 생활력은 항상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 두 가지를 소개 했다.

하나는 그가 고등학교 2학년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식구들이 상경하면서 생긴 일이다. “어머니는 서울에 오셔서 월세로 방 12개를 얻어 여관을 차렸습니다. ‘경화여관’이었지요. 처음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불을 빨아 깨끗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효과를 본 거지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관이라 처음엔 신통치 않게 생각했던 손님들도 일단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새말로 우리 어머니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어느정도 이어 받은 것 같고...”

두번째 일화는 1986년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데, 공장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 6시쯤 귀가 하던 길에 목동 ‘파리공원’ 근처에서 열무와 배추를 파는 두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중 한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용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 새벽에 이런 걸 파세요” 라며 따졌다” 그의 어머니는 “공터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아서 파는 중이다. 먹을 걸 버리면 벌 받는다”고 오히려 최회장을 타일렀다. 이 말을 듣고 최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 내일도 파세요...”

그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니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완고하게 반대 하시더군요, 가정부가 들어오면 당신 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연세가 여든 셋이신데, 아마 이번에도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딱 한번 친 골프가 너무 재미있어 계속치면 골프에 빠질 것 같아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최회장은 비 오는 날이면 작업복 차림에 삼겹살집이나 곰창집 등을 찾아 직원들과 소줏잔을 기울이고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도 한다. 너무나 평범하기에 비범한 인간 최평규.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S&T그룹 가족들의 앞날은 그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밝고 활기차 보인다.

Q 마지막으로 종친형제들에게 경인년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A :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 호랑이의 해인 경인년에는 백호의 기운을 받아 종친형제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종친형제님의 가정에도 평화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명의 단출한 식구로 출발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형제들을 위해 진솔하게 해주신 최평규 상임고문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심과 S&T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본 내용은 지난 1월 7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경남종친회 임원 신년하례회’ 때 약 50분에 걸쳐 강의하신 특강 내용을 중심으로 취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고문 최평규

- * 1952. 경남 김해 출생
- * 1975.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 2003. 세종대학교 대학원 명예공학박사
- * 2006. S&T그룹 회장취임
- * 2008. S&T홀딩스 회장 겸임

수상

- * 1987. 무역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 * 1997. 우수자본재 개발관련 대통령표창
- * 2002.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 2003. 자랑스러운국인 대상 수상
- * 2008. 다산경영상 수상

▣ S&T그룹 30년사



지리산의 신선이 된 ‘고운 최치원’

국립진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민족의 영산, 지리산’ 통해 밝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강대규)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별전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열고 있는 가운데, 경남 시도 유형문화재 제187호인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은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인인 고운 최치원의 초상화로, 경주최씨 종중의 소유이다. 이 초상은 처음엔 경남 하동의 쌍계사에서 보존하였다가, 순조 25년(1825) 화개의 금천사로 옮겨고,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하동향교로 옮겨 한동안 보존하여왔다. 그 후 광천영당을 거쳐 1924년에 운암영당으로 옮겨 와 보존해오다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보관 관리를 맡고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는 구체적인 기록과 자료가 없어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제작지 및 제작시기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다만 미술사적 접근에 바탕한 화풍과 구도, 인물에 대한 해석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국립진주박물관은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의 안전한 전시를 위하여 유물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던 중, 여러 차례의 덧칠 흔적과 박락된 안료 밑면 일부에서 다른 형태의 그림 선을 육안으로 확인 후 X-선 투과 촬영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의 도움으로 적외선 촬영조사도 실시하여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국립진주박물관 박홍인 학예연구사는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의 X-선 투과 촬영조사를 통해 현재의 그림이 원본 그림 위에 덧칠되어 있음을 밝혔다. 덧칠된 그림 부분은 화면 오른쪽 중하단의 문방구가 놓인 탁자와 화면 왼쪽 중앙의 초 받침이다. 두 부분 모두 동자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후 ‘동자승’으로 표기)이 최치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려져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초상의 적외선 촬영조사를 통해 화기(畫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의 제작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화기에는 본 영정의 제작시기가 乾隆58年(1793년)이며 하동 쌍계사에서 그려졌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국내 외에 전하는 여러 최치원의 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과 시주자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국립진주박물관의 이번 조사는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의 새로운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화기의 발견은 최치원 초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와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 장성욱 학예연구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보이는 초상 상단의 풍물의 구성과 화풍만으로도 조선시대의 사찰 등에서 널리 그려진 산신도와 상당한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화면 뒤에 숨겨진 그림에서 ‘동자승’을 확인한 점은 이 초상이 단순한 문인의 초상이 아닌 최치원을 산신도 속의 신선으로 묘사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당초 신선으로 묘사된 최치원의 초상이 어떠한 연유로 변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쌍계사에서 이봉移奉된 그 즈음에 덧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사회 구조와 불교의 위치 등을 고려해보면 다소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산신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최치원의 초상을 쌍계사 밖의 사당과 서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자승’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문방구류 등의 다른 사물로 덧칠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전하는 최치원의 여러 초상 중 신선으로 묘사된 초상들이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에서 모티프를 취하였을 것으로 여겨져 더욱 흥미롭다. 예

로부터 선비들은 깊은 산속에 은거하며 신선이 되는 것을 꿈꾸어 왔다. 지리산에 푸른 학이 노닌다는 이른바 '청학동靑鶴洞'이라는 곳이 있으며 선비이자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최치원이 청학동에 은거했다는 전설은 이후 이 곳이 못 선비들

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의 이인로가 직접 청학동을 찾아나섰는가 하면, 조선의 이육·김종직·김일손·남효온·조식 등은 지리산을 유람하며 신선의 세계를 형상화 하거나 최치원의 발자취를 느끼기도 하였다.

붙임 1.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 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경남 시도유형문화재 187호)

□ 조사방법 : X-선 투과 촬영조사, 적외선 촬영조사

□ 조사결과

- X-선 투과 촬영조사로 동자승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 확인
- 적외선 촬영조사로 화기(畵記)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음
- 영정의 제작시기乾隆58年(1793년), 제작지, 제작자 등을 명확히 확인함



그림1.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



그림2. 고운선생영정 집중조사부분

- X-선 투과 촬영조사 부분
- 적외선 촬영조사 부분

□ X-선 투과 촬영조사



그림3. X-선 투과 촬영조사 결과



그림4. 동자승으로 추정되는 인물

□ 적외선 촬영조사



그림5. 적외선 촬영조사 결과



그림6. 화기 발견



그림7. 화기 부분 상세

乾隆五十八年
 癸丑正月日
 河東溪寺
 崔孤雲眞影
 留上
 基布施主玄厚
 河氏
 施主
 化主
 畫師比丘評一
 察昊
 時莊性
 公 自祥
 處信
 邱惠
 香演
 演
 書記
 基布化主
 時持殿比丘演

‘운암영당 고운선생영정’ 화기 내용(*밑줄의 글자는 추정이며, □는 글자 판독 불가임)

- 제작연대 : 乾隆五十八年 → 1793년
- 제작대상 : 崔孤雲眞影 → 고운 최치원 초상
- 제작지 : 河東?溪寺 → 하동 쌍계사
- 그림 제작자 : 畫師比丘評一, 察昊 → 평일, 철호 스님
- 글 기록자 : ?演 → 찬연

이 외에도 시주자와 화주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제10회 대한민국 다향축전

고운"최치원선생의 魂이 서려있는 마산 만날공원차문화 축제 한마당...

차음식요리경연대회, 어린이차예절경연대회, 들차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

제10회 대한민국다향축전이 11월 1일 경상남도 마산의 만날공원에서 열렸다.

마산시가 주최하고 전국적 차(茶)문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운동연합회(회장 고성배)가 주관하였던 이번행사는 전국어린이차예절경연대회, 전국차음식요리경연대회, 전국들차경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등 50여개의 각종 상이 주어졌으며 부상품으로는 충북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조준석 선생(영동난계국악촌장)작 연주용 가야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이 전달되었다.

행사 개막식에는 1,000여년이 지났건만 마산의 월영대(경상남도 기념물 제 125호)를 비롯 남도지방 곳곳에 학문의 숨결이 배여 있는 신라의 차인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헌다례를 서막으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초헌관은 고성배협회장이' 아헌관은 **경주최씨 종친회를 대표하여 최상봉 경남종친회 부회장이**, '중헌관으로는 전 경남신문사장이셨던 이순항님이 헌다하셨다.

한국차운동연합회 고성배 회장은 "마산(.진해현)은 곳곳에 신라의 차인 최치원 선생의 숨결이 남아 있고 세종실록지리지나 신동국여지승람지에 차생산지로 나올 정도로 차의 역사가 오랜 곳이어서 전국적 차행사를 개최하여도 손색없는 차의 고장이라 말하였다.

이번행사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차문화인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들차경연대회 최우수상인 **'고운 최치원상'에는 한국차문화협회 마산지부소속 '고복덕씨가 수상의영예를 안았다.**



이 사람....

최고일 법무부 검찰국장



종친회보를 통하여 종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종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남 종친회는 다른 어느 지역 종친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친회보를 발행하는 등 많은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고려 충신 최영장군이 돌아가신 이후 이조 500년 동안 최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조 5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정승, 판서 중에 최씨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받던 경주 최부자 집도 일제시대에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염 회장과 그 아들 최성길 판서를 만나보면, 얼굴에서 그 후덕한 최부자집의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조시대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 최씨들은 각계, 각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회장님께서 큰 기둥이 되어 종친회를 든든히 받쳐 주시고, 많은 종친들이 이에 힘입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하여 21년 동안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지만, 창원지검에는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경주 최씨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은 경남 종친회는 물론 우리 경주최씨 중앙 종친회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년 새해

최해범 경남중친회 직전회장, 제11대 관세학회 회장 취임



지난 2009년 11월 28일 서울시 강남구논현동 관세청서울본부세관 11대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제11차 정기총회에서 국립 창원대학교 무역학과교수이신 본회 최해범 직전회장께서 제11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관세학회는 격동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단일지도 체제가 이루어져 전세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일본 그리고 EU등으로 지도력이 분할되어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적 의미의 국가 개념이 퇴색되어 가면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간/기업간/개인간 각각의 이익에 따른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합집산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질서에 대한 변화로써 한 마디로 경제활동의 세계화라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각국의 시장도 국내외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나 국내시장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가와 정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게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아래 세계를 상대로 매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지원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가 1999년도에 설립된 것이다.

그동안 학계, 산업계, 정부 등에서 1천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학술 및 무역실무 지원 학회로 발전하고 있다.



〈취임사전문〉

존경하는 한국관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와 경제 통합이라는 시대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무역이 중시되고, 국제화의 추세에 적응해 나가면서 나라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도전과 도약이라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관련 정책에 대해 이론적 뒷받침을 하면서, 학문적 소임을 다하고자 한국관세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국관세학회가 10여년의 길지않은 역사를 통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과 국가 경제라는 두가지 명제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불철주야 노력해 온 회원 등 가족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관세학회장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느낍니다.

사실 한국관세학회는 여타 다른 학회와 달리 관세청 및 관세유관기관과 각별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학회입니다. 소위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가 어느 학회보다 공고하고, 강했기에, 역사에 비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원들의 학문적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열성 어린 노력과 애정의 힘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관세학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관세 및 통상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과는 산학협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전반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관세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학회 회원 모두의 일심단결과 화합이 있다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학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관세학회 회원 여러분

더욱더 발전된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8

한국관세학회 회장 최 해 범

ISSUE

KBS 역사드라마 “名家” / 제대로 알고 보자



이사 상천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 간의 계층을 한 단어로 나누는 꼴이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노블레스' 계층을 정하는 것인가? 대체 얼마 이상의 돈을 가져야 '노블레스'인가? 상표처럼 만들어진 말이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마음은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다.”(차인표)

작년 12월 23일 드라마 “명가” 제작발표회에서 주인공 “국선”역을 맡은 국민배우 차인표가 한 말이다. 차인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선행천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배우이다. 필자 또한 차인표의 팬의 한 사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하지만 지난 제작 발표회에서 차인표가 한 이야기를 접하고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차인표가 한 이야기에 잘못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모두가 옳은 말이었다. 그래서 더욱 큰 문제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블레스”라는 의미를 물질적으로 가진자에 국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명가” 드라마의 소재가 된 정무공 최진립장군의 가문을 통상적으로 경주에 살았던 유명한 부자중의 하나(최부자), 또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 등 맘씨 좋고 집안 교육 잘 시킨 재산 많고 뼈대 있는 양반가문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 때문이다. 필자가 진정으로 이 “명가”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나 출연진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항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다. 말이나 물질로서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한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더라도 국민된 도리는 당연히 썩이 으뜸이요 그 다음으로 효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 보자.

임진왜란 때 약관의 나이에 의병으로 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 서생포와 도산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최진립장군이 노년(69세)에 병자호란의 국난을 당함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름에 나아가기 전 사당에 “신과 고을 최치원의 18세손 사성공파 후손 최진립, 조선임들의 신위를 받들어 고합니다. 태산처럼 무거운 것이 충이요,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이승의 삶이라. 조선임의 가르침으로 누락의 위기에 충성을 다하고 절의를 지켜이복을 다받치오라!” 라고 고한 후 인조를 구하고자 남한산성으로 출병을 하게 되고 용인 협천에서 청나라군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최진립장군의 아들은 어떠한가? “동량”은 노구를 이끌고 출정한 부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재산을 털어 군수품을 마련하여 부친의 뒤를 따르게 되나 중간에 부친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다. 최진립장군의 ‘장례치를 비용이 없어’ 주위 친척들과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드라마의 중심인물인 최진립장군의 손자 “국선”은 물질만능의 세태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조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념을 지켜나가며 마침내 집안의 영광을 재현하게 된다. 마지막 최부자인 최치원 선생 28세손 최준은 1910년 나라가 망함에 독립운동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해방 후 육영사업을 위해 현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 설립에 회사한다. 이로써 12대 400년 최부자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전 재산은 물론 살림집까지 회사한 先代와 만석꾼 대신 연금 25만원 “독립유공자” 자손인 것이 더 자랑스럽다는 후손,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만석꾼 최부자가 아닌 상생의 길로 현명한 삶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진정한 부자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신의와 이웃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 물질만능의 시대에 명가의 道理를 다한 경주 최부자, 나는 이런 진정한 부자와 한 핏줄을 나눈 경주최씨 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

- * 최준 : 1990년 “국민훈장애족장” 수상
- * 직손 : 최염(현 중앙종친회 명예 회장)
- * 이사 상천 : 푸르덴셜투자증권 부산 연산동 지점장

내 인생의 습관은?



최기석
((주)포스텍 대표이사)

이웃에 사는 지인이 종합 건강검진 결과 당뇨 판정을 받았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과체중과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이 주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규칙한 귀가시간을 고려하여 이른 아침을 운동시간으로 잡았다. 동네 뒷산의 산책로 조깅과 마을 어귀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을 활용하는 계획이다.

그는 약 5개월째 거의 매일을 1시간 이상 새벽운동을 하고 있다. 체중이 약 3kg 빠지고 뱃살도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의 건강관리 목표는 성공한 셈이다.

그렇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 강한 집념과 실천습관 없이 그 목표가 절로 이루어질 리가 없음을 일깨우는 이야기다. 자신이 지금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학습이든, 당연히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실행의지를 습관화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노력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습관부터 길렀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고쳐야 할 습관이 참으로 많다.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등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부정적이고 나태한 자신을 채찍질하는 습관부터 길러내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모든 유혹과 난관을 이겨내는 올바른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등과 꼴찌는 생활습관부터 다르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교훈이다.

세상을 움직여 가는 리더들은 독서습관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필자 또한 자신의 미래 꿈이 무엇이든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권고하고 싶다. 책 속에는 우리 삶의 공통된 지혜가 있기 마련이요,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선인들의 철학과 경험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일깨우고 알게 하는 나침반 또한 있음이 그 이유다.

경남증친회 부회장

自我觀의 正理

清州 鄉校
清州 儒道會 素養 講座
2003年 4月 16日 清州 鄉校 福祉館
講義 弧山 崔 鐵 洙

◎ 生의 原理

나의 목숨은 몸과 마음의 結合體요, 情神과 肉體의 合一體다.

나의 生命은 靈肉의 合一이다. 내 存在의 主人은 마음이요, 精神이다.

마음과 精神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나의 몸이니 天上 天下 唯我獨尊의 存在이다. 一兆의 細胞로 構成된 生命 有機體로 70歲인 경우 心臟은 10조의 收縮運動을 한다. 日日是 好日이 되도록 내몸을 管理하자.

◎ 自我

人生에서 가장 所重한 것은 自身을 바로 아는 것이다. 老子는 남을 아는 것을 智요 自身을 아는 것은 明이라하여 보다 높은 境地라 했다. 自我의 確立者는 데카르트다(나는 생각한다. 고로 存在한다.) 自我의 根本은 理性이며 理性의 核心은 自主的 思考力이며, 世上에서 하나뿐이요, 한 번 뿐이기에 한없이 所重하고 尊貴하다.

◎ 올바른 人生觀

人生은 時間과 空間이 맞물리는 틈새에 지나가는 한 點이다. 時間과 空間은 永遠하지만, 내가 차지하는 時間과 空間은 極히 限定되어 찰나의 순간이요 큰 바다의 모래 한 알과 같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始初요,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完成이니, 자아관 직업관 행복관 민족관 역사관 국가관 자연관 세계관 등, 바른 人生觀을 갖자.

◎ 人間의 定義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는 社會的 動物이요, 또 하나는 理性的 動物이라 했고 파스칼은 生覺하는 갈대라 했으며 라이프니츠는 人間을 小宇宙에 비했고, 기독교에서는 人間을 하나님의 形象대로 만들어진 存在로 보고 東洋에서는 萬物의 영장이라 하였으며 니체는 約束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定義 하였으니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存在이다.

◎ 三次元의 生

첫째는 存在의 次元이요, 둘째는 自由의 次元이요, 셋째는 보람의 次元이다.

生存은 人間의 獨立自尊 基礎基는 터진 礎는 주춧돌)이며 自由는 人間의 價値요, 歷史의 指標이며 보람은 目標成就이며 根本要素이다.

◎ 人生方程式

思考 ⇒ 行動 ⇒ 習慣 ⇒ 性格 ⇒ 運命(思考가 行動을 支配하고 行動이 習慣을 支配하고, 思考는 人間의 根本이요, 生覺은 사람의 中心이다)

그러나 신중한 行動을 위함이요, 行動은 좋은 習慣의 열매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습관이 굳어지면 性格이 形成되니 바람직한 性格은 幸福한 運命을 만든다.

◎ 誠實한 삶

誠實은 自己와 남을 속이지 않으며, 무슨 일이나 精誠을 다하고 能力을 다하고 責任을 다하는 것이 誠實의 根本이다. "나는 과연 오늘까지 誠實하게 살았는가, 自問自答해야 한다." 誠實은 우리의 反省의 거울이요, 行動의 座標요, 生活의 原則이요, 價値의 尺度이다. 中國의 有名한 儒學者 宋代司馬溫公은 "誠"자를 천하 제일로 치다. 誠자는 말씀언(言)변에 이를 성(成)자가 混合된 字로 말이 行動과 實踐에 의한 誠의 實現을 뜻한다. 宇宙와 人生에 一致된 道가 곧 誠이다. 中庸에 "誠字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참은 하늘의 길이요, 참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 함)거짓된 나는 병든 나요, 허망한 나요, 이 지러진 나요, 있어서는 안 될 추한 나요, 誠實한 내가 정말 나다. 그것은 알찬 나요, 진정한 나요, 완전한 나요, 완전한 나요, 있어야 할 나요, 가장 아름다운 나다.

◎ 참된 삶

사는 것이 重要한 問題가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重要하다. 어디서 사느냐가 重要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重要하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重要한 問題가 아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重要한 問題

이다.

◎ 마음의工夫

人生의喜怒哀樂은 내 마음의産物이요, 하늘나라는 내 마음 속에 있다. 核心은 마음을 갈고 닦는 修練이요, 用心은 마음을 옳게 쓰는 것이다. 孟子는 세 가지 修議方法에 첫째는 求하는 것이요, 둘째는 寡慾이요, 셋째는 義氣 즉 活然之氣(天地間)에 가득 차 있는 精氣요 바른 氣運라 하였다.

◎ 言行論語

季文字가 세 번 生覺한 후 行한다는 말을 孔子가 듣고 두 번만 生覺해도 可 하었다고 하였음 "季文字 三思而後行 子聞之日 再思可矣"

◎ 사람의 네 가지길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길. 빛에서 어둠으로 轉落 하는 길.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

◎ 行爲原理

좋은 생각을 하면 바른 行動을 率先하고 남을 도우며 恩惠가 되어 나에게 (後孫) 돌아온다.

◎ 努力的教訓

개미의 努力과 꿀벌의 부지런함을 배우자. 努力의 나무에는 充實의 香氣가 있고 向上의 꽃이 피고, 辛福의 열매가 열린다. 우리는 땀의 비료로 가꾸자 倦怠의 나무에는 반드시 虛無와 惡臭가 나고 불만의 벌레가 먹고 失敗의 病이 들어 죽고 만다.

◎ 猶太經典

賢人이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萬人이다. 우리의 스승이요, 先生이며 人生 만사가 眞理의 教科書다. 强者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克己自制 하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勝利는 없다. 富者란 自己의 운명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自己의 分守를 알고 滿足 할 줄 아는 사람이다.

◎ 四端確立

孟子는 仁義禮智의 四端設을 확립하다.

惻隱之心은 仁의 核心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仁의 根本이요, 羞惡之心은 義의 核心이요,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義의 핵심이요, 辭讓之心은 禮의 核心이요 禮에서 우러나는 사양을 할 줄 아는 마음이 禮의 核心이요 是非之心은 智의 核心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分別하는 마음이 智의 核心이다.

◎ 비운마음

마음을 비우자. 옛 中國의 조주 스님에게 어느 信徒 분이 찾아와서 빈손으로 왔음을 謝過하는 투로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계속 들고 있겠나!"

재미있는 逸話이다. 조주 스님은 빈손으로 온 미안해하는 마음을 털어 버리고 빈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내려놓게나' 한 것이다. 意味 신중한 말이다.

나는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사는가?

◎ 人生行路

프랑스 文豪 빅토르 위고는 오늘의 問題는 싸우는 것 來日의 問題는 이기는 것 그다음 問題는 죽는 것
※ 싸움 ⇒ 1. 人間과 自然과의 싸움 2. 人間과 人間과의 싸움 3. 自己와 自己와의 싸움

◎ 成功秘訣

남달리 努力하고 남달리 誠實하고 남달리 忍耐하고 남달리 工夫하고 남달리 淸淨하고 남달리 勇敢하고 남달리 冒險하고 남달리 信用을 지키고 남달리 義理를 지키는 것이다.

◎ 結語

우리 모두 創造의 머리 위에 새로운 理想과 誠實과 信念으로 努力의 길을 걸어 健康과 幸福을 누려 갑시다.

중국의 심장부 **북경**



최 미 숙
(주)가든여행사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 큰 고통과 희생이 필요한 것일까?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던 비행기가 어느 한순간 가뿐히 하늘을 날아오른다.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내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날아가던 거대한 물체는 중국 제일의 국제공항, 수도국제공항, 즉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새로 건설된 북경 수도공항에 살포시 내려 앉았다.

두세기가 공존한다는 중국!

그 중국 속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13억이 넘는 인구의 심장부이기도 한 북경! 바로 그 도시가 있다.

인류 문명의 도읍지이자 천년이 넘게 도읍지로 내려 왔으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 있는 도시임에 손색이 없고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적 중심이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북경은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과 현대적인 도시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가득하고 중국 4대 보물의 하나라는 경극을 감상하며 그윽한 향기의 차한 모금 하노라면 이 도시의 어울어진 멋 속에 한없이 또 깊숙이 빠져 들고 만다.

대표적인 변화가로는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에 해당하는 왕푸징 거리가 있으며 이곳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적어도 처음 북경에 오는 사람들은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최고급 자동차들이 길을 누비는 이곳에 관광객을 태운 수레바퀴의 인력거가 다닌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인력거를 타고 왕푸징 거리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먹거리 야시장에 가면 지네, 전갈튀김 요리부터 시작하여 감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만한 갖가지 요리들이 즐비하다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게 없다는 이야기의 진실을 이곳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게 한다.

북경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는 첫 번째 자금성을 들수 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배경이 됐던 자금성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황제가 살던 성으

로 동서 750m, 남북 1000m의 장방형 건물인데 방만 9990개가 넘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궁전이다.

자금성은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을 잘 나타내 주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완벽하게 현존하는 건축물이다. 그 규모나 구성으로 보아 매우 장대하고 엄숙하게 보인다.

보통 자금성을 들어가려면 천안문 광장을 지나게 되니, 천안문광장은 1989년 6·4 천안문사태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자금성의 정문이며 광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천안문광장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이사당이 왼쪽에는 혁명열사기념탑과 모택동기념관이 있다.

이 광장은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북경 시민들로 항상 꽉 차고 천안문에는 모택동의 대형초상화가 중앙에 걸려 있고 혁명 구호들이 간판처럼 붙어 있다.

두 번째로는 만리장성이 꼽힌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인류 최대의 유산이고 고대 중국의 군사용 방벽인 이 성은 전체거리 6000km로 중국 진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 까지 2000여 년 동안 중국인들이 북방 유목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 만리장성의 성벽 가운데 팔달령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구축했다. 성벽 위에 “용도”라 불리는 통로가 있고 약 110m 마다 돈대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화원이 있으니 이화원은 북경시의 서북쪽 16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 청나라 때 여름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곳은 곤명호(昆明湖)와 만수산(萬壽山)으로 유명하다.

곤명호는 인공호수로 총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크다. 만수산은 이 호수에서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다. 특히 인수전 북쪽에는 3층 건물인 덕화원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는 서태후의 전용극장으로 사용되었고 덕화원은 서태후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70만냥의 은을 들여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를 아프게 했을지 가히 짐작이 가며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음에 가슴이 조여 오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양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지와 역사적, 문화적 자료가 산재해 있으니 중국의 규모에 다시 한번 감탄 해 본다.



경산공원을 배경으로

종친회소식

중앙종친회,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경주대종회
 호남종친회
 충북종친회
 경남종친회 / 사무국보고
 띠앗회
 진주화수회
 거창화수회
 창녕화수회
 함양화수회
 김해장유문중



등 정

중앙회
 경남



경남종친회 제3기 임원소개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10월 행사

- 일시 : 2009년 10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 제목 : 孤雲 崔致遠 研究叢書 制1輯 出版記念會 및 學術發表會
- 개요 : 고운 최치원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 국제적으로 선양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고운 국제교류사업회에서 그 1차 사업으로 「孤雲崔致遠研究叢書」간행을 기획한바, 제1집이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학술발표회 및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함.
- 학술발표
 - 1) 崔英成(한국 전통문화학교 교수)
발표 : 崔致遠 思想의 普遍性和 特殊性
 - 2) 黨銀平(중국 남경대학 교수)
발표 : 崔致遠의 哲學思想 序說
 - 3) 郭丞勳(중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발표 : 「四山碑銘」에 나타난 崔致遠의 中國史研究와 그의 思想動向





경인년 새해에도 종친형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경인년 새해에도 종친 형제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형을 세운 모범국가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경제엔진에 힘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0년,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대한국민의 힘으로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2010년이 세계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도 되새겨 보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완성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인년 원단에 경주대중회 회장 국회의원 최병국

최준식(催俊植, 약학박사) 조선대학교 교수 가송약학상 수상



경주최씨 호남중진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최준식 박사는 대한약학회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약학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가송약학상을 수상하였다.

최 박사는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 10년간에는 생약성분으로 항산화제가 항암제들의 생체이용 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85편과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66편, 15편의 저서 등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다.

또 2003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재임 당시 약학대학 6년제 표준과정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의 기본 틀을 구축해 약학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9. 10.15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술상수상 상금 1,000만원 전액을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 했다.

1973년 조선대에 부임해 학생처장, 교무처장, 약학대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약제학회학술상, 약학연구상, 백약학술상, 약시금탑상, 유럽약학학술지에 최다인용 논문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대한약학회부회장, 한국약제학회부회장, 한국임상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학회지에 총 250여편의 논문을 게재 하였다.

최 박사는 경주최씨 호남중진회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상의 위업을 받드는 일과 후진양성에 남다른 관심과 그리고 일가간에 화합을 위하여 솔선수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인(庚寅) 새해를 기리며...

밝아온 희망찬 경인 새해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경주 최씨 고운 시조님과 선조님들의 무궁한 명복을 비우고, 종친 형제자매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 지시길 진심으로 비오며,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일찌기 없든 종친회 비전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종사의 스승 경남도종친회 최효석 회장님과 도약의 선각사 최옥천 총장과 임원님들의 교시(敎示)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충북도종친회 시·군·회장 일동은 경남도 종친회 회보를 통해 환희에 미소지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뿌리를 알면 시조와 선조님을 알게 되고, 오늘에 이르도록 종사(宗事) 위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꼭 이루겠다는 종친관(宗親觀)이 서고 그냥갈수 없다는 엄숙한 책무(責務)를 느끼기에 우리 종친님께 필지(必知)사항을 여쭙오니 차제에 꼭 알아 둡시다. 내 종사의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면 내 발자취는 훗날 내 후손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조(始祖) 중조(中祖)님의 자(字) 호(號) 시호(諡號) 존함(尊號) 약력(略歷) 업적(業績) 묘소(墓所) 제향일(祭享日)을, 알고 보학상식(譜學常識)으로 선계(仙界)는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고 세계(世系)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함임을 꼭 알아야하고, 세(世)와 대(代)의 정의(定議)로 서는 시조를一世(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고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代로 하여 위로 올라가며 계산하는것을 代라 하며, 자기의 조상을 몇대조 할아버지라 하고 자신은 시조로부터 몇세(世)손 이라고 합니다. 성인 중에도 까마득하니 한 스럽습니다.

우리 경주 최씨 온 누리에 으뜸 종친으로 꽃 피워가기위해 참되게 살아갑시다. 사는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것이 중요하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며, 무엇을 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이 우러러 받드는 동방의 이학시조 고운 할아버님의 품에서 거룩한 유지를 하나되어 받들어 온 종인과 모든 종친회는 경주 최씨 종문의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앞서 활짝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庚寅元旦,
慶州催氏 忠淸北道 宗親會長 催 鐵洙

충청북도중친회 제 13차정기총회 개최 / 최철수회장 연임

2009년12월 10일 11:00 청주시 사직1동소재 거구장 대회의실 개최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어 국민의례 차례에서는 국기와 중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선조에 대한 묵념에 이어 경주최씨의 노래를 제창하였다. 중친회 3대요소와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최철수중친회장의 인사가 이어 졌으며, 지역중친회의 모범 운영 사례 발표에 이어 2009년도 경과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 그리고 수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1. 경주상서장 및 부산해운대 춘계제향 참가의 건
2. 중국 양주 고운 선조 고유제 참가의 건
3. 중친회 운영 유공자 및 호행자 표창의 건
4. 중친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만세 삼창으로 폐회하였다

〈회장 취임사〉

뿌리와 책무(責務)

고귀한 우리 뿌리의 근원(根源)을 알면 시조(始祖)와 선조(先祖)님을 알게 되고 오늘에 이르도록 종사(宗事)를 위해 내가 한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꼭 이루겠다라는 바른 종친과(宗親觀)이 서고 나의 엄숙한 책무(責務)를 느끼지요. 그냥 갈수 없답니다!

참된 인생의 길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남을 알기보다 내 스스로의 뿌리 즉 조상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형제 자매간에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 나이가 중친간에도 앞서 다가가 고민을 나누고 정을 베푸는 세상에 꼭 있어야 할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주최씨(慶州崔氏)의 득성조(得姓祖) 소벌도리(蘇伐堵例) 원조(元祖)님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기원전 57년경 지금의 경주 양산(揚山)기슭 나정(蘿井)옆 숲속에서 상서(祥瑞)로운 기운이 돌아 가보니 백마는 하늘로 올라가고 표주박 같은 큰 알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니 광채가나고 새 짐승들이 춤추듯 노니니 박혁거세(朴赫居世)로 원조님이 정성껏 양육(養育)하시어 신요, 신라 3대 유리왕 9년 기금부터 1997년 전 서시32년에 득성(得姓)하니 그 어른의 은덕으로 명문거족(名門巨族)의 자랑스러운 내가 있습니다.

고운시조(孤雲始祖)님은 자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이요, 시호(諡號)는 문창후(文昌侯)로 서기857년 신라47대 헌안왕 원년 신라의 서울 사량부(沙梁部)에서 탄생하시니 총명 정밀 민첩하신 그는 12세에 바다 건너 당에 유학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천하문장에 동방의 이학시조(理學始祖)요, 문필로 전란을 평정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과 계원필경(桂苑筆耕)집 등은 전무후무할 명문서요, 학문을 닦아 일깨우고 밤낮으로 나라 걱정하시다가 정사(政事) 상소한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인생과 자연을 풍아하신 시성(詩聖). 이렇듯 위대하신 가르침과 업적(業績)을 기리려 나라 안팎으로 문묘(文廟)와 서원(書院)에 모셔진 거룩한 시조님이 더더욱 우리리지며 긍지와 책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주시 교동 최부자집은 12대 만석 10대 진사로 자자손손 진사를 따고도 당시 과거제도에 매관매직 사례가 많아 대과에 나가지 않는 기풍이 있었고 마지막 만석군 최준(崔浚)은 현 중앙중친회명예회장 종손인 염(炎)의 조부로 준의 11대 조인 이조 청백리(靑白吏) 최진립(崔震立)으로부터 가훈과 같이 가난한 자를 구하고 육영(育英)에 헌신하고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 구국독립자금으로 100억원 현재로는 몇 조에 해당되는 거금을 지원한바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이 해방 후 제일먼저 찾은 1969년 무화공부부가 신라의 집으로 선정한 최부자집이 애민(愛民), 애족(愛族), 애국(愛國)의 정신과 역사에 담겨 영원불멸할 최문과 민족

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경주최씨의 근황(近況)은 지난 5월30일 중앙宗親會 第15次 정기총회에서 덕망과 宗親관이 넘치시는 시중회장(市仲會長)님이 다시 추대되어 우리 宗親사에 큰 획이 그어질 것으로 굳게 믿어지며

고운시조님께서 우리 국학(國學)이 열리는 역사의 새벽에 남기신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학술 연수도 수행하고 사상적 천착(穿鑿)도 심도 있게 구명할 고운국제교류사업회(孤雲國際交流事業會)를 설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해동공자(海東孔子) 격인 (成均館長) 최근덕(崔根德)님이 이사장에 중앙宗親會 명예회장, 염(炎)님이 상임이사, 중앙宗親會장 시중(市仲)님이 운영이사회회장으로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학술연구위원회와 국제교류사업회가 있어 사계(斯界)의 석학대덕(碩學大德)이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뿌리라는 의미는 자아(自我)의 근본(根本)을 분명하게 알고 찾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뿌리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천지만엽(千枝萬葉)의 혈연을 찾아 조상의만세(萬世)에 빛나는 업적(業績)과 유훈(遺訓)을 순후(淳厚)한 미풍(美風)과 예속(禮俗)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전승(傳承)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 宗親의 사명이자 주어진 역할(役割)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宗親會는 1996년 초 조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시국 宗親會를 규합하여 정관을 11월11일 도정정기총회에서 획적이 제정되어 충청도宗親會 사무실 현판에 이어 발족한지 어언 13년 충청인 다운 운영지표로 가고 싶은 서로돕는 신뢰받은 알찬 전국 모범宗親會로 미래를 밝게 영여 감은 오직 도내宗親 모든 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宗親여러분 건승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慶州崔氏 忠淸北道宗親會長 崔鐵洙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인들이여, 백호(白虎)의 기상(氣像)으로.....

새해 아침이다. 해마다 맞는 새해 아침이지만 올해는 더 한층 무겁고 험찬 기운이 교차한다. 살아온 해보다 살아갈 해가 점점 더 빨라지는 가슴 한편의 묵직함이 가중된다. 또 한편으로는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그것도 60년 만에 찾아왔다는 백호(白虎)의 해라 그런지 새로운 힘이 솟는다.

60년 전 1950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환갑을 맞는 해이다. 6·25, 3·15, 4·19, 5·16,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오일쇼크, 군부독재, 산업화, 민주화, 88올림픽, IMF, 2002월드컵, 세계금융위기..., 세계 10대 경제대국, 전쟁의 참상과 폐허 위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고, 썰리리맨을 거쳐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이 땅의 60년 역사와 함께한 한 개인으로서 보는 지금의 한국. 눈부시고 감격스럽다.

전쟁 이후 장충체육관 설계를 필리핀인들에게 맡겨야 했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한국이었다. 바로 그 나라가 세계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은가? 어디서 나올까. 한국의 힘은, 늘 궁극하다. 월드컵 붉은 악마, IMF 금모으기 운동,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CEO 조찬 모임에서 보는 기업인의 학구열... 우리의 힘과 저력은 무궁무진하며 위기를 만나면 더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60년 우리 경제가 운명으로 예정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듯이 미래 60년의 운명 또한 다가올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래 우리 경제 60년의 첫 출발점에 선 새해 아침,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인으로서 몇 가지 바람을 호소해 본다.

우선 기업인은 공장부지, 건물 등 하드웨어가 강한 기업보다는 세계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강소 기업을 만드는 데 진력했으면 한

다.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 도전, 직원복지 등 기업 내실을 다지면서 한 우물을 깊게 파고 끝까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하겠다. 근로자는 이제 상생의 열린 마음으로 파이 키우기에 우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행여라도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를 씨름하는 제로섬 게임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투명경영, 분배, 민주적 경영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음을 우리 근로자도 인식해야 한다. 새해에는 노사가 다른 점은 잠시 뒤로 미루고, 같은 공통분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함께 발휘하면 참으로 좋겠다.

기업은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도 뒤에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온 행정력을 쏟아 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기업이 안고 있는 다양성을 수용해 주는 톨러런스(Tolerance)를 가져 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한국경제에 지난 시절 그리했듯 우리 경남이 다시 한번 앞장서기를 희망해 본다. 창원기계공단, 마산자유무역지역, 거제와 진해의 조선단지를 비롯 경남의 곳곳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나라 경제 발전의 충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 경남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도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해외 담수설비, 각종 선박과 자동차 관련 제품, 에어컨, 휴대폰을 비롯하여 수많은 세계 최고 제품이 우리 경남에서 생산, 전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미(美)’ 저자 오주석 선생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의 호랑이가 세계에서 가장 잘 그린 호랑이라고 단언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대한민국 경남에서 호랑이의 험찬 기상처럼 넘쳐나기를 경인년 새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해 본다.

사무국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慶州崔氏慶南宗親會 2009년 10월 19일 정기이사회

1. 전회보고

- 1) 최효석회장 참석 뿌리를 찾아서 경주탐방행사 준비상황 보고
- 2) 참석형제 선물을 회장께서 전부 협찬하시기로 함 (3백만원)
- 3) 중친회보 표지인물 등 기사관련 보고

2. 보고

- 1) 경주탐방 230명참석 경비 정산내역 / 침부문서
- 2) 상임고문회의 개최 (10월12일12:00 창원 용호동 금강산)
 - ◆ 초청자 : 회장 효석(초청자가비용부담함)
 - ◆ 참석자 : 회장 효석, 평규, 광주, 웅기, 해범, 사무총장.
 - ◆ 불참자 : 충경 / 신공항관련 경남상공회장단 긴급기자회견으로
 - ◆ 의 제 :
 - 중앙중친회와의 관계정립 : 긴밀한관계 유지 필요.
 - 지역 리딩그룹으로서 현상황 흐름 진단 및 시사환담
 - S&T그룹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다음회보 인물포커스는 S&T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최평규상임고문 인터뷰 게재를 건의.
 - 차기회의 : 연장자순으로 초청할 것임.

3. 의제토의 및 의결사항

- 1) 형제초청, 뿌리를 찾아서 행사 점검
 - 발언내용 요약 -
 - ◆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주최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되어 참 유익했다
 - ◆ 너무 더운 날씨에 한꺼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한 탓에 어르신들 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어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
 - ◆ 사천시, 창녕회수회 등은 중친회가 단합되는 좋은 기회였다.
 - ◆ 차기행사때는 금번행사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하기로 의결.

- 2) 내년쯤엔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 하는 것은 어떤가

– 발언내용 요약 –

- ◆ 특정지역과 지역문중이 있는곳에 형제님들이 집중되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 일 것 같다
 - ◆ 시간을 두고 아직 미약한 지역의 문중들을 적극 찾아내어 많은 지역이 정상화된 후 다시 시도하자.
- 3) 제10회 대한민국 다향축전 후원의 건(11월 1일)
- ◆ 예전과 동일하게 시조 최치원 헌다례식으로 행사가 개최됨.
 - ◆ 들차경연대회 대상으로 고운상이 선정되었음.
 - ◆ 전년도 후원금 범위내서 올해도 후원하기로 의결.
- 4) 12월 주요인사초청 임원회의 예정(사무국 준비)
- ◆ 초청자의 일정에 따라 전체임원회의(현재77명)를 개최하거나, 상임고문회의로 대체한다.
- 5) 최철국 상임고문 탄원서 작성의 건 / 첨부문서 참조
- ◆ 형제들에게 전파하고 참여는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기로 한다
- 6) 회보 알리미광장등 적극 활용 방안 모색
- ◆ 알리미광장은 형제개인 및 지역소식을 적극 알리는 공간이다.
 - ◆ 활성화를 위해 이사들이 적극 홍보하고 참여 하기로 의결.
- 7) 제3기 임원의 임기.
- ◆ 임원임기에 대해 아직도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공지 합니다.
 - ◆ 2009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2년간).

종친회 홈페이지에 최소 매주 한 번씩은 방문하자.
 형제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재밌는 이야기를 기고하자
 주변 형제들의 동정을 소개하자
 우리 홈페이지는 : www.gyeongjuchoi.com

상문고문회의전경



띠앗회(이사상조회 / 회장 최동식) 봉사활동

띠앗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경주최씨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함께 책임을 나누는 작은 첫 걸음으로 다문화가족 종친형제인 최인규, 레티프영의 자녀인 최아룬의 첫돌잔치에 참석하여 형제들의 작은 성의를 전달하였다. (회장 동식, 태석, 수식, 영숙, 옥천)



진주화수회, 진주박물관 탐방

가장 오래된 조상님영정이 진주박물관에 있다.

2009년11월11일 각종 언론에 대서 특필된 최고(最古)의 최치원영정이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중인데 11월 말에 전시가 끝이 난다고 하여 진주화수회어른들과 청년회원들을 긴급히 모셔서 진주박물관을 찾았다.

화수회장(최상현)님과 고문님, 청년회장등 9명이 모여 미리 연락된 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만나 먼저 영정 앞에서 큰 절을 하고서 소중한 내용을 설명 들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187호인 이 초상화는 1793년 하동 쌍계사에서 제작되었다고 했다.



이 영정의 오른쪽 푸른색 테두리안의 책장 속과 왼쪽 훑대 속에 동자승이 그려져 있는 것이 적외선 투시 촬영으로 확인되었고 아래 붉은색 테두리 안에는 화기(畵記)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이 영정은 신선도로 기획 제작되었다고 추정이 가능하단다. 제작당시부터 신선으로 묘사 되어진, 아주 특별한 우리 시조님이기에 우리 자손들은 경주 최씨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상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관련보도자료(상세내용): 인터넷검색-최치원영정으로 검색하면 많은 보도자료가 있음.



◆박물관의 가을 기획전에서 지리산에 관계되는 각종 자료수집과정에서 장승도 포함이 되어 기꺼이 장승2점을 제작 기증했는데 위 장승이 전시관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럴 장승분야 대한명인 선정

진주청년회 총무 최해럴씨(사)한국장승진흥회장이 2009년 12월 26일 광주 무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명인추대식에서 대한명인(장승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임회장 최종준

거창화수회 청년회 정기총회

2010년 1월 15일 오후 6시30분 거창 제일빌딩내 별궁뷔페에서
최씨 거창군 청년회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취재 / 이사 민식)

- * 신임회장 최종준(농원경영)
- * 사무국장 최광기(거창군청 근무)
- * 총무이사 최기준(거창소방서 근무)

취 임 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차가운 한파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화수회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모여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우리 청년회의 소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원여러분께 당부 드릴 말씀은 모든 단체나 조직은 단합과 참여가 그 모임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창립목적을 성실히 수행 해 나가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일가 어른들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하였습니까마는 우리 청년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마다하지 않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수회가 어느 문중보다도 먼저 창립되어 매년 3월 모임을 가지는 날이면 준비한 자리가 부족하여 다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청년회의 초석을 놓고 기반을 잘 다져온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전 회원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잘 알려진 우리 최씨의 선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학문으로는 도저히 격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문창후 고운 할아버지를 위시하여 많은 선조들이 우리 역사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조선말 면암 최익현 선생은 일제 침략 시, 붓을 놓고 칼을 들어 의병을 일으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분연히 싸우다가 대마도에 끌려가 옥중에서 순국하신 것은 선비정신과 애국의 표상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훌륭한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저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발전은 물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역량과 입지를 넓혀 가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새로 밝아온 2010년도에도 일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씨 거창군 청년회장 최 종 준





창녕화수회부회장
창녕문화원부원장
최수길

창녕 관룡사와 문화관광지

민족의 영산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창녕의 진산 화왕산의 구룡산 기슭 넓은 골짜기에 관룡사가 자리 잡고 있다. 옛날에는 이 골짜기 위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제자 일천명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화한 곳이라 유명한 기도원의 도량이었다고 한다.

o. 관룡사를 창건한 동기

그 당시 신라의 국왕인 백정왕(진평왕)이 이곳에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왔다가 국사의 법문에 홀연히 도울 게 우치게 되었다. 국왕은 신라 수도 경주로 돌아가 이기도원이 국사의 인연의 땅이라 하여 보답을 하기 위하여 그 당시 송파라는 승려를 시켜 절을 짓게 하였다. 그 승려는 왕명을 받고 옥천 골짜기에 도착하여 절터를 잡기 위하여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헤매었으나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이 있어 절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송파라는 중은 자기의 정성이 부실하다 하여 그때부터 백일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기도하는 중에 온갖 마귀의 방해와 유혹을 하고 희유하여도 현혹되지 아니 하고 아흔 아흐레날(기도 마지막 날) 화왕산 용지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며 등천을 하였다. 그 후에 골짜기마다 운무가 걷히고 산새들이 지저귀고 많은 야생화가 피어오르고 화창한 날씨였다. 송파의 승려는 기쁜 마음으로 택지를 정하여 절을 짓게 되었다. 이 절을 창건하고 절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작명하기가 어려워 공모를 하다가 피하였으나 좋은 절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화왕산의 용지에서 용이 등천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불 관(觀)자와 미리(龍)룡자를 넣어 관룡사라는 절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절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성이 긴 절명이 되었다. 그 후 신라 경덕왕 때(748) 추담선사가 부속건물을 건립하였고 그 후 태종 원년 1401년에 대웅전을 창건하였다 한다.

o. 관룡사의 화 난사

관룡사는 긴 역사를 간직한 절이면서 화난도 많이 겪은 절이다. 임진왜란에는 의병군의 활동장소와 무기의 은의 장소라 하여 전국사찰은 왜군들이 모두 불살아 버리는 때였다. 이절도 화난을 비켜 가지 못하고 모두 소실되어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나 광해군9년(1617)에 재건하였다가 다시 숙종30년(1704) 가을비가 많이 내려 대웅전이 떠내려가고 승려 20여명이 익사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용케도 약사전은 2회나 난을 피하였다고 하니 영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영조 25년(1749)에 재건했다. 그 후 1965년에 대웅전을 해체 보수하고 지금에 이르고 이 일련의 사고들은 관룡사 상량문의 기록에 있다. 특히 이 사찰은 신라의 8대 명찰에 속한다고 한다



o. 문화재와 관광지

관룡사의 경내외에는 문화재가 많다. 보물 4점과도 지정 문화재 5점 비지정문화재 5점 등 모두 14점이 산재해있어 어느 사찰보다 문화재가 많으며 특히 전설에 담겨있는 구룡산은 기암괴석이 많아 봄이면 많은 야생화가 골짜기마다 피어나고 여름은 녹음 속에 묻혀 있는 관룡사의 용마루가 보일락 말락 한 산사의 정치와 맑은 물이 있는 유명한 피서지이며 가을이면 구룡산 바위틈마다 붉게 물 드린 풍경과 가는 곳마다 하얀 역새꽃 등은 찾아오는 등산객들은 모두 감탄을 한다. 그리고 일일 등산 코스로는 영남일대로 최고의 산행으로 주말마다 산이 뽕살을 할 정도로 많은 등산객이 몰려 각광을 받고 있는 관룡사이다.

근교를 관광하고 하사하면 역사의 이기깊은 옥천사지가 있다. 옛날에 영화와 영욕을 같이 하였던 이절은 신돈이란 고려 말의 정치 승려가 공민왕의 절대 신임을 받아 한때를 영위했던 그 태생의 절이라 하여 공민왕의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 주살된 이후 이절도 같이 생명을 마치고 지금은 그 흔적이 주춧돌과 탑의 옥개석 조각과 석등 받침단이 여기저기 덩굴고 웅장한 거석의 석축이 옛 절터를 보는 듯 쓸쓸히 나무 그늘에 묻혀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옥천 계곡의 물길 따라 하산한다.

최치원 선생 숭고한 정신 기린다

최씨 종친회 정기총회, 100여명 참석 결속 다져 신임회장에 최규호씨 추대



최씨 함양군 종친회(회장 최상조)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함양읍 목화예식장에서 열렸다.

최치원 선생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 함양군발전과 후손들의 화합을 도모한 이 자리는 관내 종친을 비롯 출향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완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상희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2009~2010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보고를 가졌다. 주요안건으로 상림공원 일원에 추진되는 최치원 시조 추모사업에 따른 종친회 기금조성(출향인 포함) 등의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종친회 임원선임은 지난 5월13일 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을 총회에서 수락하는 형식을 가졌다. 이에 최씨 함양군 종친회 신임회장에 최규호(지곡)씨를 선정, 고문에 최상조 직전회장과 최수언 부회장을 추대, 부회장에 최상희, 최옥경, 최완식, 최중근, 최영수씨를, 감사에 최문급, 최인호씨를 선정했다. 또 사무국장에 최용배씨를 선정하고 종친회 사무국은 청년회와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최상도 청년회장은 연임됐다.

최상조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며 종친의 힘으로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했다”며 “마지막으로 군에서 추진 중인 시조 성역화 사업과 관련 종친회에서 기금조성이 필요 하니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까지 종친의 일에 관심의 당부에 박수가 이어졌다.

최규호 신임회장은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고에 대해 최상조회장님을 비롯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먼저 시조 성역화 사업에 따른 기금조성과 관련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물론 종친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조의 얼 가슴에 담고 갑니다 강원도 홍천군 최씨종친회 상림공원방문

강원도 홍천군 최씨종친회(회장 최종목) 회원 15명이 지난 13일 상림공원을 찾았다.

최치원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상림공원을 찾은 이들 일행과 함께 함양군 최씨종친회 최규호 회장을 비롯, 최완식 부회장이 곳은 날씨에도 공원 산책을 함께 했다.

최종목 회장은 “매스컴을 통해 접하기만 했던 상림공원을 직접 와보니 감회가 깊다”며 “최치원선생의 업적을 후손들이 이렇게 잘 보존하고 가꿔 나가니 후손으로써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또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함양중친회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설명〉

함양군 상림공원 내 최치원선생 신도비 앞에서 기념촬영(사진왼쪽부터 함양군 최씨종친회 최완식부회장, 최규호 회장이며 다섯 번째가 강원도 홍천군 최종목 회장이다)

경주최씨장유문중명단

성명	주소	전화	직책
최상갑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83-13	011-9509-9222	회장
최동찬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가락타운 209-1404	011-860-8567	부회장
최동흥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78-76	017-589-1398	감사
최만갑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내덕	017-575-3227	감사
최해만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93-17	011-576-2635	총무
최규덕	경남 김해시 풍류동 507	017-546-3390	재무
최해갑	부산시 서구 서대1동 236 남성빌라 401	051-255-1370	
최상해	부산시 영도구 봉래2가 112 미광아파트 104-103	011-852-5438	
최상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762	055-314-2448	
최영홍	경남 김해시 장유면 월산주공아파트 705-601	011-591-2524	
최삼출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267-1	055-314-3283	
최임수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3-5 부산법무사합동사무소	011-590-1048	
최명수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286	055-314-3366	
최동준	경남 창원시 상남동 성원아파트 511-2104	011-550-4971	
최춘일	부산시 북구 화명1동 대림타운 210-1402		
최종태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사덕	051-363-3309	
최동훈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5	011-594-1929	
최동익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303	011-830-4663	
최동울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291	011-863-2467	
최인동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범동포		
최이해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426-10	055-314-2522	
최정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최학중	경남 김해시 명법동 661		
최동운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효성아파트 308호	011-852-5438	
최동석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19-20 (16/5)	016-9541-2580	
최상욱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더샵아메리시 103-2701	016-9744-3536	
최동석	경남 김해시장유면 삼문리40-1 대동4차A 603-2003	010-5161-1383	
최동주	경남 김해시 장유면 하손	055-314-2885	
최동국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055-314-2252	
최동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055-314-2187	
최동길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주공1단지 1104-1806	010-9132-3685	
최우원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2 하림아파트 108-906	055-337-8590	
최동식	경남 창원시 신촌동 13-19	011-9516-7282	
최명덕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18-40	051-501-3980	
최동태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011-5402-7277	
최동재	경남 밀양시 교동 936 교동타워 601	011-883-7724	
최이해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무계2구 426-10	055-314-2522	
최동백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유하	055-314-1758	
최동점	부산시 동구 수정5동 449-30 (4/4)	051-466-1707	
최동천	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 578-30 (1/7)	016-9661-5445	
최동수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2차한신아파트 209-1001	011-569-4552	
최동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42	010-4605-4919	
최준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	011-9532-2651	



회장 최시중

최시중 위원장, “유료방송업계 공정경쟁” 당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신년 하례회에서 “2010년 미디어 빅뱅으로 방송통신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미디어산업 도약을 위해 공정경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제2의 인터넷 붐 조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2의 인터넷 붐 을 조성해 인터넷 최강국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18일) NHN과 다음,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 기업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대 전환기를 맞아 제 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앞으로 10년 간 한국이 인터넷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기위해 상생협력의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업계에 쓴소리

국내.국가에 기대지 말고 세계로 나아가야

'미디어 빅뱅'을 통한 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신년하례회에 참석, 각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만 새로운 것이 나오는 법"이라며 나아가 "국내 시장과 국가에 기대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주문했다.

단군께 인사드립니다



이사장 최근덕
고운국제교류사업회

2009년 10월 3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단기 4342(2009)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서 최근덕 성균관장이 기념사 전 국조단군께 인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공기(孔紀) 2560년 추기(秋期) 석전(釋奠)을 28일 오전 10시 성균관 대성전을 비롯한 전국 234개 향교에서 봉행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은 매년 5월11일과 9월 28일 공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선성선현(先聖 先賢)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회장 최효석

창원지검·창원 범방협 ‘범죄예방가족 한마음대회’

창원지검과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는 지난 13일 창원시동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출소자 자립지원을 위한 범죄예방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창세 검사장과 검찰간부, 검사, 최효석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모범보호관찰대상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모범 출소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예방위원들은 무의탁 출소자 자립시설인 법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기관 및 모범대상자와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가졌다. 또 성금과 대회시상금 전액을 출소자들의 자립지원금으로 전달했으며, 앞으로 민간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열약한 갱생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창세 검사장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재범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상호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에서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 의령군협의회 실천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회장 강구봉)는 지난 4일 군민문화회관에서 최효석 도협의회 회장과 김채용 의령군수, 이창섭 군의회 의장,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회복을 위한 강연회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효석 회장의 특별강연에 이어 유공회원과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구해연(65·의령읍 동동리)씨를 비롯한 8명이 제5회 모범가정으로 선정돼 경남도협의회장상을 받았다.



상임고문 총경

**“장애인 접근성 보장하는 웹 만들 것”
경남장애인재활협회-사이버문 협력 조인식**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 최충경·오른쪽)는 20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사이버문(주)대표이사 최창석·왼쪽)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협력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협력 조인식은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기에 경남 장애인재활협회 역시 운영 중인 ‘경남장애인정보센터(www.gomduri.kr) 홈페이지’를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충경 회장은 “앞으로 경남장애인정보센터를 통해 장애·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하기 편리한 웹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충경 경남스틸 대표, 창원대에 발전기금 1억여원

최충경(오른쪽 두번째) 경남스틸(주) 대표이사가 창원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800만원을 기탁했다.

최 대표이사는 21일 창원대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박성호 창원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기금은 대학의 연구력 증진, 인재 양성 장학기금, 캠퍼스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 대표이사는 이날 기탁한 1억800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창원대에 7억7000만원을 후원했다.





상임고문 평규

S&T중공업 “공작기계 명가 부활” 선언

18일 오후 이동수(왼쪽서 네번째) S&T중공업 노조지회장, 박재석(왼쪽에서 다섯번째) S&T중공업 사장, 최평규(왼쪽에서 일곱번째) S&T그룹 회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S&T그룹 최평규 회장은 창원 S&T중공업이 창립 50년을 맞아 18일 오후 외동 본사에서 첫 개최한 공작기계 전시회(SIMF 2009)에 참석, ‘공작기계 명가(名家)’의 부활을 다짐했다.



S&T대우, 전 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S&T그룹은 부산 S&T대우(주)가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회답의 뜻으로 전 임직원에게 41만5600주의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스톡옵션은 총 발행주식수의 2.8%에 해당되며, 주당 행사가격은 2만 5710원으로 행사기간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4일까지다.



상임고문 광주

도내 새마을지도자 20명 정부표창

경남새마을회(회장 최광주)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체육관에서 개최된 200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도내 20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함안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함안군은 26일 칠원면 공설운동장에서 조영규 군수와 조진래 국회의원, 최광주 경남도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경남경찰청 발전위원회 초대 회장 취임

경남경찰청은 경찰청지휘부와 경찰발전위원 35명이 참석하여 경남경찰청발전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최광주위원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최근 범죄가 광역화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폭 넓은 민,경 협력 체제를 통해 전 도민으로 부터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 되어있다.



상임고문 응기

사랑의 동전나누기 캠페인

경남신문 직원, 월드비전 동전모으기 동참

경남신문사 직원들이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에 동참, 모금액을 월드비전 경남지부에 전달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사랑의 동전나누기 캠페인’을 6년째 벌여온 경남신문은 노란 식빵 모양의 ‘사랑의 빵 저금통’에 직원들이 모은 동전 30만 890원을 지난 11일 오후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월드비전 경남지부에 기탁했다.

“오색오감 공연으로 뜻있는 송년을”

경남신문사, 송년콘서트 티켓 100장 창원시 기탁

경남신문사는 오는 20일 오후 3시와 7시에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송년콘서트 ‘오색(五色) 오감(五感)’ 티켓 100장(550만원 상당)을 창원시에 기탁했다.

경남신문 최응기(오른쪽 두번째)대표이사는 지난 4일 오후 박완수 창원시장을 예방하고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주변여건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희망의 미래를 펼쳐온 경남 도민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에 창원지역의 어려운 이웃들도 자리를 같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 정심

창원지검-범죄예방 창원지역협의회 '사랑의 김장'

창원지검과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여성분과는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창세 검사장, 김해수 차장검사, 서흥기 형사2부장검사, 이순주 사무국장 등 검찰간부와 최효석 회장, 최정심 여성분과위원장, 전준규 운영실장, 각 지구 여성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40여 명은 24일 낮 지검 구내식당에서 불우모범 보호관찰·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나눠줄 김장을 담갔다.



청소년과 공릉엑스포 현장학습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황교안)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최정심)는 25일 소년소녀가장, 불우모범청소년 36명과 함께 고성 공릉세계엑스포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축하합니다!

이사 수영 : 2009년 11월 14일 경민들레 김해지역 총판 개업.



이사 수석 /
2009년 10월 27일 (주)향도컨설팅 마산지사장 취임
2010년 2월 경남대학교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김해분원장.

경주최씨 경남중친회 54



지문 호윤



이사 형철

이사 형철 /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상 수상(바르게살기운동경남협의회 이사)
자문 호윤(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2010년 1월 총경으로 승진.

제 3기 임원



회장 효석
(주)정우 회장



직전회장 해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상임고문 총경
경남스틸(주) 회장



상임고문 평규
S&T그룹 회장



상임고문 철국
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상임고문 광주
광득종합건설(주) 회장



상임고문 웅기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사무총장 옥천
(주)한국보험건설링 대표이사



부회장 기석
동아축기사 대표



부회장 기석
(주)포스텍 대표이사



부회장 덕호
(주)DK택시 대표이사



부회장 만환
진풍기계공업(주) 대표이사



부회장 병문
에이스전자 대표



부회장 상결
이일종합식품 대표



부회장 상봉
부성자동차운전학원 원장



부회장 석만
인터내셔널호텔 대표이사



부회장 영철
최영철치과의원 원장



부회장 정심
(주)제일식품 대표이사



부회장 정욱
K2메가샵 대표



부회장 판용
(유)진복종합주류 대표이사



부회장 평우
제일교통(주) 대표이사



부회장 호근
창담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회장 호진
밀양약국 약국장



부회장 상도
(주)창원준설 대표이사



부회장 재영
청야의료재단 이사장



부회장 창우
현대타일 대표



부회장 성대
의령조청한과 대표



명예고문 삼용
나라시스템스(주) 회장



명예고문 영희
화산산업(주) 대표이사



고문 봉민
남해중친회 회장



고문 규호
함양중친회 회장



고문 삼수
창녕화수회 회장



고문 세군
진주화수회 회장



고문 강신
동양공업사 회장



고문 숙희
창신대학 겸임교수



고문 재영
고미술창원방 대표



고문 정태
창원시의회 4선의원



고문 학영
위천석재 대표



고문 현규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사무차장 상천
푸르덴셜투자증권 연산동지점장



사무차장 태석
우성자동차매상사 대표



섭외이사 미숙
(주)가든여행사 대표이사



섭외이사 영숙
나리유통 대표



이사 권필
무지개광고 대표



이사 귀열
성문정판인쇄사 대표



이사 규팔
진성물류(주) 대표이사



이사 길홍
두레합동법무사무소대표법무사



이사 덕희
미래상조 이사



이사 동식
(주)영진 대표이사



이사 두식
최투스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이사 민식
코오롱스포츠거창점 대표



이사 병갑
일등기업 대표



이사 병식
블랙타운 대표



이사 병학
경성종합철강(주) 대표이사



이사 선호
굿미디어프로덕션 대표



이사 성대
한영상사 대표



이사 수식
(주)항도컨설팅 마산지사장



이사 수영
연세자동차매상사 대표



이사 영자
양산도자기공원 대표



이사 영희
행복한부동산 대표



이사 은아
인산한의원(주) 대표이사



이사 재권
곤양주유소 대표



이사 창훈
무궁화꽃화원 대표



이사 치용
(주)63시티 관리소장



이사 해렬
한국장승협회 회장



이사 형철
흥국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사 혜숙
(주)R&L바이오 홍보자문위원



자문 기두
양산소방서 서장



자문 덕희
로알골프샵 대표



자문 만우
거창소방서 서장



자문 명희
자영업 대표



자문 방기
마산두곡중중 재무및총괄



자문 봉규
연지슈퍼 대표



자문 승조
월영대사적보존위원회 회장



자문 영규
정무공파명기조 종손



자문 호윤
경남지방경찰청 총경



자문 훈찬
진주지방경찰청 계장

❶ 축하합니다 / 결혼

- * 고문 현규(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장남 수원군 / 2009년 11월 7일 창원호텔 웨딩홀
- * 이사 영재(양산도자기공원 대표) : 장녀 김공주 / 2009년 11월 29일 양산시 두레예식장
- * 형제 민수(주)GNA 대표이사) : 본인 / 2010년 1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 * 고문 정태(창원시의회 전의장/ 4선의원) : 차녀 은정 / 2010년 1월 17일 창원호텔웨딩홀

❷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부고

- * 부회장 판용(유진북주판 대표이사) : 모친상 / 2009년 11월 21일 한미음병원 장례식장
- * 부회장 상봉(주)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배우자 김을순(바르게살기운동경남협의회 여성회장) 장인상 / 2009년 12월 5일 창원병원 장례식장

운암 영당 소장 시조 최초 영정 초상화

